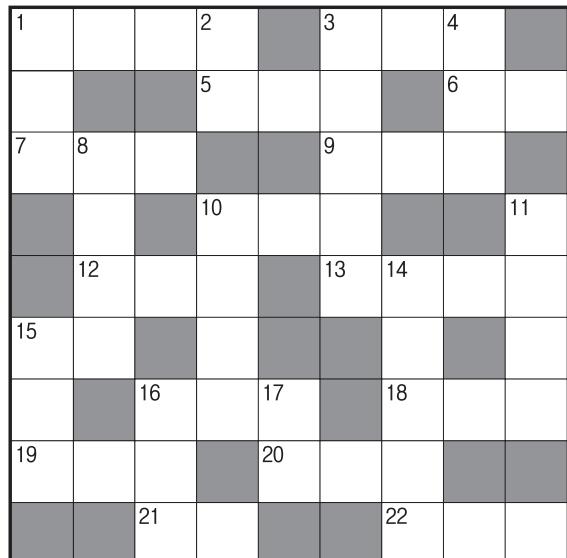




제1,188회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낱말퍼즐을 만들어 푸른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작은 선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4264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1번지
(감삼동 68-4) 4층 푸른신문 편집부 앞
E-mail:pr5726000@naver.com

→ 응모엽서에 성명과 우편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정답자 발표 : 1,336호

〈가로열쇠〉

- 아주 귀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첫 아이는 우리에게 ○○○○나 다름 없다.
- 네 개의 꼭짓점이 있고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
-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냄새.
- 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 달 언저리에 둥그렇게 생기는 구름 같은 허연 테.
- 주거나 물가 따위가 아주 큰 폭으로 갑자기 오름.
-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 노화로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 잘못이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데가 없음.
- 아무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키아 함께 어울림.
- 성이 나서 갑자기 기를 쓰거나 소리를 냅다 지르는 모양. 소리를 ○○ 지르다.
- 매화·난초·국화·대나무.
- '지지(地支)'를 달리 이르는 말. 그 수효가 모두 열두 개라는 데서 온 말로, 자(子), 죽(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유(酉), 술(戌), 해(亥)를 말한다.
- 목의 뒤쪽 부분과 그 아래 근처.

20. 주석(음력 8월 15일).

21. 말을 타고 하는 운동 경기.

22. 많은 남자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세로열쇠〉

- 추석에 뜨는 둥근달.
- 태양에서 셋째로 가까운 행성. 인류가 사는 천체로 달을 위성으로 가진다.
-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둔하고 반응이 느린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그녀는 말귀를 빨리 못 알아듣는다고 나에게 ○○○○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다.
- 순조롭고 힘차게 잘 자라는 모양. ○○○○ 크는 아이들.
- 벼슬이나 직위가 없이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나감.
- 몸을 움직여 하는 모든 동작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이르는 말. 그녀의 ○○○○가 수상하다.
- 열흘 동안붉은꽃은 없다는 뜻으로, 한번 성한 것 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
- 쉽게를 받고 구족계를 받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어린 남자 승려.
- 자기의 집.

1,186회 퍼즐 상품 받으실 분

*당첨상품은 우송해 드립니다.



이용권 2매 ☎ 1688-8511

김병원(달서구 용산로)
허유정(달성군 다사읍)
정상진(달서구 달구벌대로)

김주은(남구 효서2길)
김건환(달서구 월배로)
이지은(달서구 달구벌대로)

1,186회 정답

난	장	판	무	분	실	물
미	정	당	방	위	레	
엽	약		기		방	
전						
쟁	전	내		부	아	
탈						
하	무	비	일	비	재	
드	문				종	지
문						
드						
렛	서	까	래		난	
일	상	자	의	식	주	
설	래	발				
례						

♣ '가족과 함께 풀어보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사 편집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화까지) 도착된 엽서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당첨상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푸른신문

대표전화: (053) 572-6000 팩스: (053) 572-600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323길 13(감삼동 3F)
(우편번호: 42640)

- | | | |
|--------|---------------|-----------------------|
| ▶ 등록일 | 2000년 10월 17일 | ▶ 은행계좌안내 |
| ▶ 등록번호 | 대구다 01130 | SC 제일은행 556-20-270245 |
| ▶ 간별 | 주 간 | 예금주: 푸른신문 김현두 |
| ▶ 인쇄처 | 미디어프린팅넷(株) | |
| ▶ 발행인 | 김현두 | ※ 구독료 1년 15,000원 |
| ▶ 편집인 | 김현두 |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prsinmun.co.kr

푸른신문 구독신청 방법

- 구독료 : 1년 15,000원
- 입금계좌 : SC제일은행 556-20-270245 예금주: 푸른신문(김현두)
- 전화 : (053) 572-6000 팩스 : (053) 572-6006

달서구·달성군 지역신문 '푸른신문'은 지역밀착형, 주민밀착형 지역신문으로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훈훈하고 작은 이야기를 까지도싣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